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제 39 - 41 호

2022년 10월 9일

-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 576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한국선교역사에서 성경번역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지난 주일 입교자. 세례자 명단
입교자: 김예흠 이흥인 최정원 정아인
세례자: 진나우 최시원 임채경
- 다음 주일(기독교교육주일) 오후 2시에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는 '사랑방공동체 성서연구' 입니다.
- 다음 주일 오후 특강시간 후에 공동체임원 연수모임 모입니다.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결혼 57주년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선교 바자회

한 해 동안 사랑방공동체 학교에는 각 학교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 이 세 학교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연합행사들이 있는데 그중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선교 바자회>입니다.

선교바자회를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물건들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 모두가 자신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꾸러기들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바자회 당일에는 공동체 마당을 활보하며 잡화 코너의 주 고객이 되어 줍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고가의 물건도 사주는 VIP 고객들이십니다.

어린이들은 바자회가 있기 전부터 매일 바자회의 목적인 선교에 대해 숙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도 기꺼이 내어주며 그 어떤 상인보다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어린이 벼룩시장은 바자회 수익금에 큰 보탬이 됩니다. 반강제로라도 자신들이 준비해온 물건들을 완판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짜라 있네~ 짜라 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모든 먹을거리 코너를 섭렵하는 엄청난 먹개비들이기도 합니다.

멋쟁이들이 없으면 과연 연합선교바자회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멋쟁이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멋쟁이들의 바자회 준비는 2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바자회 당일에 있을 놀이마당과 사진, 타투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자치회를 합니다.

놀이 품목도 정하고 역할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준비에 들어가지요. 직접 장을 보고 필요한 물품도 제작하고 시험도 해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자회 전날에는 바자회에 필요한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를 날라 판매처를 마련합니다. 기증 물품을 모두 나르고 정리합니다.

드디어 바자회 당일! 멋쟁이들을 그간 준비한 놀이마당을 뚫습니다. 진행도 하고 놀이에 참여도 하면서 바자회에 정말 큰 즐거움을 선사해줍니다. 그런데, 연합선교 바자회는 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학부모님들과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바자회에 나오는 모든 기증 물건이 바로 이분들에게서 나오고 또 주 구매자들이셔서 많은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된 줄도 모르고 먹을거리를 다 마련하시고 판매도 해주십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초대하시고, 아는 지인들도 불러 모아 자꾸만 사라고~ 사라고 권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연합선교 바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을 내고 힘을 쏟고 물건을 기증하고 구입하고 심지어 거저 나누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연합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기꺼이 나의 주머니를 열어 적지 않은 재정을 낸다는 것은 바자회의 모든 수익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즉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뜻을 위해 한마음이 되는 날이기에 바자회는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마6:21)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곳.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연합선교 바자회여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사기 11장

제목 : 이기심을 버리고 귀 기울입니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72 390 322

1. 관찰]

- 1] 1~11 입다와 길르앗 지도자
- 2] 12~28 입다의 외교협상 시도
- 3] 29~40 입다의 맹세

2. 해석]

- 1] 입다와 길르앗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합니다.
- 2] 입다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암몬의 왕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 3] 입다는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3. 적용]

- 1] 진정한 경건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 2] 인간의 생각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 3]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합니다.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런 물음을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8월 9일에 집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던 저는 너무 놀라 그 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1분도 안 돼 1층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물이 뒷담을 넘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문을 열어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고 아직 퇴근 전인 남편에게 알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오는 데 30분 이상 걸린다네요.

교회 식구 중 몇 분에게 전화했고 다들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혼이 반쯤 나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데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뒷담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샌드위치 패널을 가져다 담을 만들어 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찬 물을 퍼내기 시작했지요. ‘아··, 이게 실화냐! 이걸 TV에서 보던 장면인데 이게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 맞아?’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니 진흙 범벅이 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또 다들 옆드려서 닦아줍니다. 땀에 젖은 것인지 비에 젖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 젖은 몸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뭔가 시간이 멈춘 듯, 현실이 아닌 듯한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다들 척척 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재민이 된 날의 일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재민이 할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짐을 밖으로 빼내 쌓아놓고 포장을 씌웠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바닥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더미에 빠진 것들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말리고, 집 안팎에 엉망이 된 곳들을 하나하나 손보며 고칩니다. 뒷담도 높였고, 도배도 다시 했고, 망가진 문은 새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집은 바닥을 말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요. 아직도 덜 마른 곳이 있어 바닥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째 시멘트 바닥인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재민의 아픔을 이번에 아주 많이 알게 되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 일처럼 같이 마음 아파한 분, 몇 날 며칠을 시간을 내서 힘든 일을 몸소 해주신 분, 김치를 담가 주신 분, 손수 김초밥을 정성스레 싸주신 분,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신 분, 멀리서 택배로 떡을 보내주신 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사랑 가득한 얼굴을 이렇게 보여 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방공동체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7 : 4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86 : 3-5 인도자
 다함께
52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3 : 28-30 설교자
440 사랑방
“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55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일구 정성미 / 봉헌위원 : 정혜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언제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동기도문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광야에 부르짖는 소리.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으며 예수님과는 친족관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음성에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때,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을 비판한 죄로 감옥에 갇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선생님이 그분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랬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강조하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었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우리도 예수님께 여쭙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질문을 합시다. 조용한 시간, 다른 그 누구, 그 어떤 것에도 방해 받지 말고 그 품에 거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급하게 결론으로 달려가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나의 시간을,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권서자들이 전해 준 복음이 그 어떤 선교사보다 큰 능력을 보여주었듯, 오늘 우리의 삶도 개혁해 나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박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이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날은 아빠와 함께 캠프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못했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캠프를 열심히 준비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어떻게 될지 몰라 올해는 항상 하던 6월 6일 현충일이 아닌 10월 3일 개천절에 맞춰 아빠와 함께 캠프를 했습니다. 개천절에 하는 첫 캠프는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던 놀이, 물총놀이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놀이들을 아빠와 함께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워낙 추워져서 실외에 치던 텐트를 실내에 쳤습니다. 또 학생수가 적어져서 3가정, 4명이 항상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면서 다른 때와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빠들이 오랜 시간 서로 의논하며 준비해서 그런지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식사 한 끼 한 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아빠들이 몸을 불살라가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들을 위해 만든 인터뷰영상은 아빠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1박2일 꾸러기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하고, 아빠와 꾸러기들이 서로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참여한 아빠와 꾸러기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시끌벅적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가을이 깊어가는지 바람도 쌀쌀하고 햇살도 포근합니다.

금요일에 사랑방 선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9시에 등교한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재미난 영화 시청을 하고 11시 개장에 맞추어 참여하였습니다. 마니또에게 줄 선물과 음식을 나누기 위해 뛰어 다니는 모습, 선생님들께 드릴 맛난 간식을 사는 모습, 뽀니뽀니 해도 잡화에서 떠날줄 모르고 계속 깎아달라고 조르는 친구들, 엄마아빠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모습, 쓰레기 정리를 하시는 선생님들, 목청 높여 손님을 찾는 모습들, 온 몸에 타투를 해서 목욕

을 안 할거라는 친구들... 이쪽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바구니 가득 담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바자회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분주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요일에 도보여행 예행연습을 갑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5학년 다섯 명과 정재훈 선생님께서 유럽 공동체 탐방 여행을 떠나 허전하면서도 바자회 덕분에 설레고 바쁜 한 주였습니다.

개천절로 월요일 저녁에 들어와 자고 일어나 보니 화요일 아침, 쌀쌀해진 날씨에 은은하게 낀 안개를 가르는 아침 운동으로 멋쟁이들은 학교에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목요일엔 공동심화 '유네스코는 처음이지?:한국편'의 마지막 수업으로 발표와 피드백을 했습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 준비로 마당에 책상, 천막, 깔개도 세팅하고 옷도 분류하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대망의 금요일 바자회 날, 쌀쌀하지만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햇볕이 나서 더울 정도였지요. 멋쟁이들은 선교바자회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용돈도 아낌없이 썼습니다.

떡볶이, 순대는 물론이고 샌드위치, 닭강정에 치즈볼 등등 어머니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간식들도 모두 맛있었습니다. 어린이, 멋쟁이 벼룩시장은 늘 인기 만점이고 경매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멋쟁이들은 깜짝 공연, 타투, 사진, 다양한 놀이를 맡아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바자회가 다 끝난 뒤에는 멋쟁이들이 척척 말끔하게 치우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

오랜만에 사랑방공동체 학교의 반가운 식구들이 모여 마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웠던 잔치였습니다. 바쁜 한주를 보낸 멋쟁이들은 이번 주 월요일, 한글날로 쉬고 저녁에 등교합니다. 멋쟁이들 잘 쉬고 오세요 ~ ^^

< 교사 : 박예나 >

바자회를 마치고

3년 만에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모임을 하니 모인 교사들도 기억이 가물가물 했어요. 하지만 관록이 어디 가나요? 금세 소실된 기억도 찾고 모두들 열심히 척척 준비를 해냈지요. 그리고 10월 7일에 꾸러기들, 어린이들, 멋쟁이들, 학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과 손님들까지 제법 북적북적 성황리에 바자회를 치렀습니다.

저는 꾸러기 정승희 선생님과 함께 냉음료 코너를 담당했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많이 팔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2시쯤에 완판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어린이와 멋쟁이 남학생들이었어요. 사시사철 뜨거운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판매하느라 음식을 사러 갈 여유가 없었는데 어린이학교 소리 할머니(김보디아 선교사)께서 먹으면서 하라고 이것저것 사서 계속 가져다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연 바자회에서 선교사님의 섬김을 받았네요.

사실 저는 울여름부터 바자회를 준비해왔습니다. 뜨개실을 구입하고 차곡 차곡 호빵수세미를 떠서 80개를 준비했습니다. 예약 주문을 받으며 누가 수세미를 찾아주려나 싶었는데 61개나 주문이 들어와서 참 기뻐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음식을 만들고, 간직한 음식재료를 기꺼이 내어놓고, 잘 손질한 물건을 기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천원도 궁리하며 사용해도 바자회 날은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현장에서 온 삶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는 것이지요.

바자회를 마치고 돌아와 최근 들어 가장 긴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바자회 풍경을 떠올리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빙그레 웃음이 났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골로새서 3:1-17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평화롭게 종전 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안사 공동체>
 - 1) 안사공동체는 요양원입니다. 이번에 치매전단시설을 통해 하나님나라 구현하게 하소서.
 - 2) 안사장애인공동체는 지적장애인지원시설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3) 은퇴자 생활시설이 목회자 부부, 홀사모, 여교역자 공간으로 필요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소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명호 집사님, 수술 중인 김용필 집사님을 위해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 2) 유럽공동체탐방을 떠난 5학년들의 안전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올 수 있도록
 - 3) 금요일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 연합과 선교라는 목적이 잘 누리지는 시간 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이번 주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 바자회가 있어서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바자회 준비와 진행 도우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멋진 행거를 제작해주시고, 바자회에서 팔 물건을 만드느라 밤잠을 잊으셨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바자회날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공동체를 둘러보시고,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잠시라도 사랑방공동체를 알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